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017년 5월 10일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아시아)은 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게 백남기씨의 죽음을 철저히 공정하며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민들의 신임을 잃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317일 동안 의식이 없었던 백남기씨가 숨졌다. 백남기씨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였다가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씨를 비롯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독립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제대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와 2015년 12월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때 당국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조직 파견해 2015년 12월 4일~9일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국제조사단은 시민사회 단체, 기자, 변호사, 피해자,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났다. 국제조사단은 물대포의 사용, 버스 차별 설치,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사단은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하지 않게 사용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백남기씨의 부상과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가족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려 했다.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0일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켰다. 2016년 11월 18일, 생명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채유 기원과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백남기씨의 유가족들은 7명의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여기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 경찰청장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은 즉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만 한다. 백남기씨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과하지도 않은 것은 한국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불처벌이 용인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즉각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포럼아시아의 존 사무엘 사무총장은 말했다.

2015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공권력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 없는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 조와 살수차 운용지침은 가슴 아래로만 살수하도록 되어있고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찰은 즉각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약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포럼아시아는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인권기준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백남기씨에 대한 이전 정부의 국가폭력을 재조사하고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어떻게 인권 이슈를 다루는지에 따라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백남기씨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About FORUM-ASIA:**

*FORUM-ASIA is a regional human rights group with 58 member organisations in 19 countries across Asia. FORUM-ASIA has offices in Bangkok, Jakarta, Geneva and Kathmandu. FORUM-ASIA addresses key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freedoms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democratiz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 East Asia Country Programme, [easia@forum-asia.org](mailto:easia@forum-asia.org)

Regional Office: S.P.D Building 3rd Floor, 79/2 Krungthoburi Road, Khlongtoisai, Khlongsan, Bangkok 10600, Thailand

International Office: Rue de Varembé 1, 2<sup>nd</sup> Floor, 1202 Geneva, Switzerland

Tel: +41 (0)22 740 2947 Fax: +41 (0)22 740 2948

Jakarta Office: c/o KontraS - Jalan Kramat 2 no.7, Senen, Jakarta Pusat  
10420 Indonesia +62(0)213919006

Kathmandu Office: c/o INSEC – Syuchatar, Kalanki, Kathmandu, Nepal, +9779(0)14278770

Website: [www.forum-asia.org](http://www.forum-asia.org), Email: [info@forum-asia.org](mailto:info@forum-asia.org)